

12. 나홀로 섹스 Solitary Sex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섹스에 대해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든 성행위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사춘기와 함께 오는 성적인 성숙의 일부분으로 표출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종종 다른 양상으로 표출한다. 다음 세 장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장 보편적인 성행위에 대해, 성경은 무어라 말씀하는지, 사람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몽정 Nocturnal Emissions

성적으로 활발치 않은 청소년들은 수면 중에 성적 오르가즘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일은 대부분 (아마도 3/4 이 넘는) 남자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며, (아마도 1/4 이 안되는) 소수의 여자 청소년들에게도 일어난다. 자면서 오르가즘을 경험하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의아해 하며 깨어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종종 이런 경험들을 “몽정(wet dreams)”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일 꿈을 꾸다가 이런 오르가즘을 경험하면 청소년들은 잠 자다가 죄를 지었다고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 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깨어 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지만, 자면서 꾸는 꿈을 통제할 수는 없다.

성경이 성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찾아 볼 때마다 나는 킹제임스역으로 널리 알려진 흠정역이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발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가 영국에서 작가로 활동하던 시기에, 랜슬롯 앤드류스(Lancelot Andrewes)는 새로운 영어 번역 성경을 만들도록 발탁되었다. 4 백년 전에 그와 박식한 남자 교인들이 (당시 여자들은 성경 번역가가 아니었다), 큰 탁자에 둘러 앉아서 신명기를 번역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신명기 23 장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이 비교적 평이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23 장에서 그들은 앞 절들을 번역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한다. (분명하게 몽정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구절인) 10 절을 번역할 때, 그들 중 한명이 가능한 첫 번째 표현(wording)을 제시한다. 다른 사람이 말한다. “뭐라구요?”

상당한 토론을 거친 후에, 모두 마침내 합의한다. “만일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있어 밤중에 닥친 부정함으로 인해 부정해지거든, 그는 진영을 떠나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지니라.”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 지 몰라, 그들은 “밤중에 그에게 닥친 부정함”이라고 했다. 물론 현대적 번역은 “몽정으로 인한 부정함”이다. 밤중에 자다가 그 사람은 성적 오르가즘에 달하고 정자가 분출된다:

야행=밤 그리고 방사=정자 분출. 그리고 킹제임스역(KJV)에 쓰여진 것처럼 "밤에 그에게 닥친다"는 말은 그 일이 그냥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떤 청소년들은 "불결(unclean)"이란 말을 죄 짓는다는 말이나 더럽다는 말로 생각한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불결"은 의식적으로(ceremonially) 불결하다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라. 즉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불결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필요 없이 단지 저녁 때 까지 진영 밖으로 나가 있다가 씻고 다시 진영의 일상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도 기억하라. 레위기 15 장을 보면 많은 것들이 사람을 "불결"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인은 유출(생리) 기간에 불결하며, 그 기간에 그 여인의 침대를 만지는 자나 혹은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저녁까지 부정했다. 레위기 22 장에서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기어다니는 것(벌레)"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다. 해진 후 물로 씻은 후에야 그는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

몽정을 겪는 것은 성적 성숙의 표시이지 죄는 아니다. 먼 옛날에 살던 몇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면서 죄를 짓는 거라고 결론 내렸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심지어 과거엔 이런 "악한" 행위를 멈추기 위해 거세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날에는 이 일을 죄나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성적으로 성숙해가는 정상적인 현상일 뿐, 결혼 생활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정기적인 성적 배출이 아니다. 결혼하면, 몽정이 상당히 줄어 들거나 완전히 멈추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위 Masturbation

대부분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 기분이 좋다는 것과 자신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건드리면 성적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남녀 청소년들 모두가 처음으로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남자 청소년의 90% 이상이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50% 정도가 최소한 자위를 실험해 봤고 많은 청소년들은 빈번히 자위행위를 한다.

자위는 청소년들이 행하는 중에 아마도 가장 쟁점이 되는 성적 행위일 것이다. 어떤 문화에서는 자위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성장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변태적 행위로 여긴다. 이런 차이는 거의 모든 문화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발견된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몽정과 달리, 성경에서 자위에 관해 직접 언급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 그러나 킹제임스역에 나오는 몇몇 구절의 독특한 표현은 과거에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창세기 38:9)
-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일이 그들의 손의 권세 안에 있으므로 아침이 빛을 발하면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도다 (미가 2:1).

-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고린도 전서 6:9)

한 세기 전만해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구절들을 근거로 자위를 죄로 정죄했다. 그러나 현대 번역으로 이 구절들을 읽으면 이 중 어떤 구절도 자위를 언급하는 구절은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 자위는 창세기 38:9 때문에 “오난의 행위(Onanism)”라고 불리워 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난은 신명기 25:5-6 의 명령을 철저히 불순종하기 위해 일종의 피임 행위 (무능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자위가 아니었다.
- 미가서 2:1 에 언급된 사람들은 밤 동안 악을 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동성애 섹스나 자위에 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
- 고린도 전서 6:9 절의 번역 때문에 자위를 “자기 학대(self-abuse)”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동성애를 언급한 것이지 자위를 말한 것이 아니다.

자위에 관해 성경에서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른 문화 속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자위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한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 중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예가 여기 있다.

제이 애담스(Jay Adams)는 그의 책, *기독교 상담가의 매뉴얼(Christian Counselor's Manual, Grand Rapids, MI: Baker, 1973, pp.399-401)*에서 “자위는 죄다”라는 제목에 한 장을 할애했다. 애담스는 그 장에서 “성경에서는 자위와 같은 것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것에게도 종로트 하지 말라고 했다... 마음의 간음이... 성경적인 옵션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성행위의 도착증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그가 왜 자위가 죄인지 제시한 4 가지 이유를 보라: (1) 어떤 이들은 그들의 자위에 충동적이 된다; (2) 어떤 사람들은 자위에 대해 환상을 품는다; (3) 성경은 자위행위가 옳다고 하지 않기에 그릇된 것임이 틀림없다; (4) 애담스는 자위를 도착증/변태로 분류한다.

찰리 쉐드 (Charlie Shedd) 는 그의 책, *황새는 죽었다 (The Stork is Dead, Waco, TX: Word, 1968, p73)*에서 “자위—하나님의 선물” 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을 썼다. 그 장에서 쉐드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해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자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창조주의 진정으로 지혜로운 선물이라면? 우리가 필요로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자위를 성장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한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사용하라.”

나는 이 글 앞머리에서 자위가 가장 논쟁의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애담스는 자위를 죄라고 하고 쉐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허버트 마일즈(Herbert Miles)는 그의 책 *혼전의 성 이해 (Sexual Understanding before Marriage)*라는 책에서 “언제 자위가 죄가 되나?”와 “언제 자위는 죄가 되지 않나?”라는 제목의 두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청소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소년 제 3 문화 자녀들(TCKs)은 무엇을 할 수 있나?

What can adolescent TCKs do?

성경은 이같은 '나홀로 성행위들'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 성경이 몽정에 대해 단 한번의 언급이 있었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기에 우리도 죄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런 성행위는 여자가 월경을 하거나 시체나 뱀을 만지는 것과 같은 죄가 아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의식적인 불결(ceremonial uncleanness)에 관한 구약의 모든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든 성경험들은 오늘날 청소년들에겐 그들이 어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진정 성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이다.

자위가 죄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이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물론,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는 청소년이라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자위가 언급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춘기에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적 욕구를 남편이나 아내에게 표출할 수 있었고 그들의 성적 욕구를 나홀로 방식으로 표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 세기 혹은 그 이전 사람들은 자위가 여드름으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각종 병을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여드름 난 청년들에게 자위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90%가 넘는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암에 걸린 어른에게도 자위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들도 역시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드름이 없거나 암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자위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물었다면 같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답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자위가 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해서 자위가 추구해야 하는 좋은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청소년들은 (그리고 어른들도) 자위에 관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나의 자위행위에 성적 환상이 연관되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앞 장에서 다룬 모든 성적 환상 관련 문제들이 여기에도 관련된다. 성경은 그것을 정욕이라 말하고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
- 나의 자위행위는 충동적인가? 그것이 나를 사로 잡아서 도저히 멈출 수 없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 절제의 문제가 있고 절제를 회복해야 한다. 포르노에 심하게 빠진 사람들은 그런 충동을 끊기 위해서 신뢰관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 나의 자위가 사회 생활을 저해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성적 만족을 위해 자기 안으로 움츠러든다면, 건강한 결혼 관계를 이끌어 가지 못할 것이다. 사실은 그로 인해 결혼 상대와의 성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 유혹과 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유혹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고 죄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종종 스스로를 그 곳으로 데리고 간다.

-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궁극적인 해답이 과연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살면서 가끔 자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확신”의 문제일런지도 모른다.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무엇에 돈을 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람들의 확신은 다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어느 것도 자위에 대한 좋은 답이 될 수는 없다. 서구 문화는 성적 욕구가 높아진 사람들(최소한 남자들)에게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매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우자와의 섹스 대신 자위를 하고 있다. 아마도 당신은 “자위가 과연 죄냐?”고 물어볼런지 모른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죄로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들 중 하나일 수도 있다. 한 두가지 예를 들자면,

- **술.** 성경은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이 포도주—그것도 매우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술을 멀리한다. 첫째는 술을 너무 마시면 성경이 죄로 여기는 술취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람이 술에 인박이면 알코올을 이기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때문이다.
- **영화/비디오.** 성경은 영화나 비디오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 들중 어느 것도 성경 시대에 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영화나 비디오 보는 것을 피한다 (최소한 G 급이 아닌 것은). 첫째, 그들은 성적 내용이 있는 비디오를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적인 환상을 일으켜서 결혼 밖에 있는 사람과의 섹스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포르노에 중독되어 자기 절제를 잃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포르노 비디오를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위에 빠지게 될 때 결혼 밖의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이끄는 성적 환상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위 충동에 빠져 자기 절제를 잃어 버리게 된다. 어떤 결정이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각자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문화는 명백히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 3 문화 자녀로서 다 알다시피, 자위에 대한 견해는 문화마다 다 다르다. 성경이 그에 대해 뭐라 말하지 않기 때문에 타문화권의 견해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이 옳다고 주장해서도 안된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

